

다윗, 찐친을 가진 왕

* 6/11(금) 사무엘상 ⑤ 18–20장

사무엘 1–7장	사울 8–15장	사울과 다윗 16–31장
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3장 여호와의 언약궤와 전쟁 4:1–11 엘리 가문의 몰락 4:12–22 언약궤의 행방 5:1–7:2a 회개와 부흥, 예벤에셀 7:2b–14 사사 사무엘의 활동 7:15–17	사무엘의 아들들 8:1–3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여호와의 응답 8:4–22 이스라엘의 왕 사울 9–11장 사무엘의 고별사 12장 사울의 통치 13–15장	다윗의 등장 16장 다윗과 골리앗 17장 ▶ 다윗과 요나단 18:1–5 ▶ 사울의 폭주, 다윗의 도피 18:6–3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울의 다윗 살해 음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돌람 굴로 도피한 다윗·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 광야로 도피한 다윗· 엔케디 굴 사울을 살려 준 다윗· 사무엘의 죽음· 하길라 산 사울을 살려 준 다윗·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

Before 출치며 읽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언약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내가 처한
<사울의 궁정>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챔피언’을 쓰러뜨렸습니다(17:4, 23, NIV).

자고 일어나 보니,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18:7).”

개선장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 적 : 다윗을 두려워하는 폐왕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쪽으로
기울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를 주목하는 사울의 불안, 증오, 음모가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살기등등한 왕이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합니다.

세 번은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메랍, 그리고 미갈과의 결혼조건으로 블레셋의 손에 그를 넘겼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다윗에게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섯 번의 시도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사울은 이미 왕위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13:14, 15:23).

사울에게 다윗은 두려운 왕위 경쟁자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 하려 합니다(19:5).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말을 만듭니다. 의도치 않게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의 위협은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의 우정으로, 사울에게서 오는 그 어떠한 악도 다윗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 벗 : 다윗을 지켜내는 우정

여섯 번의 살해 음모 실패 후, 사울은 그의 병력을 동원해 다윗을 없애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압니다(20:33).
다윗의 생명을 요나단의 우정이 지켜냅니다.

수백 년 전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선택했습니다(창 44:33).
이제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유다 지파’의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울로 인한 갈등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우정의 꽃을 피웁니다(20:42, 23:16-18).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고,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다윗을 도피시킨 후 요나단은 두 번 다시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 요나단은 ‘목동’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full extent)’ 그 우정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다윗을 적대시하는 환경, 그 ‘사울의 궁정’ 속에서 그는 끝까지 우정의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사울의 궁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처지보다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 그 : 다윗을 견고케하는 영성

사울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16:14).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사울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그를 *막내(막내, 하카톤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16:11-12).
모암 족속의 피가 섞여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룻 1:4, 4:21-22).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다운(human) 그의 삶이 환난 중에 그리스도인다운(christian) 면모를 드러냅니다.
적대감 속에서 다윗의 영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뒤흔드는 위기 앞에 우리 신앙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가 견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